

여자프로농구 6개 구단 감독 출사표

'올 시즌, 역대 가장 치열'

WKBL 2024~2025시즌 27일 개막... 아시아쿼터, 우승 향한 좌우할 핵심 요소

여자프로농구 구단들이 우승에 도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가 오는 27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천 하나은행과 청주 KB국민은행의 경기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6개 구단 감독이 출사표를 던졌다.



2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구단 감독들은 21일 서울 중구의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2025시즌 하나은행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이번 시즌은 역대 가장 치열할 거란 평가가 따른다. 지난 시즌까지 박지수를 앞세운 국민은행과 박지현 등을 중심으로 한 아산 우리은행이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신상훈 WKBL 총재도 이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아시아쿼터를 도입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 무대에 적응한 수준급의 농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WKBL은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 슬로건을 'UP그레이드'로 정했다고 한다.

의 선수 변화가 있었던 까닭이다. 위 감독은 "한 번씩은 다른 팀에 온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농담한 뒤 "(새 선수들을 한 데 묶으면서) 업그레이드 중인 것 같다. 우리 선수들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KIA 선수들... KBO 한국시리즈 막 올라즈의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4 신한 솔베르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21일 오후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티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전공생 진로탐색 지원

대경대 국제태권도과, 재단 탐방 프로그램 참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8일,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대경대학교 국제태권도과(학과장 박정욱 교수) 전원이 참가했다.



태권도진흥재단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경대 국제태권도과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대경대학교 국제태권도과 교수 및 전공생들은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소개와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처 방문, 태권도원 투어 등의 일정으로 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임무와 주요 추진 사업 등 기관에 대한 이해와 채용 절차 및 준비 사항 등 태권도 행정가와 지도자 등 태권도진흥재단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진행됐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태권도학과가 있는 전국의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도 제자이자 태권도 후배들의 진로 탐구에 도움 되도록 태권도진흥재단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기를 권했다. 조성원 학생(2학년)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고민은 모든 전공생들이 가지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 행정가와 지도자 등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도전에 대한 의지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교·동아대학교·대경대학교 등 경상권과 세한대학교·우석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 등 전라권, 나사렛대학교·단국대학교·백석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교를 직접 찾았고, 기관 탐방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태권도학과가 있는 각 대학교에 발송하는 등 태권도 전공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 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비롯해 태권도학과 대학생들의 MT·OT 등을 위한 '모찌지 여행' 상품,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원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태권도장 갖셈이 여행' 상품 등을 통해 전공생들과 도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기관 탐방 프로그램과 태권도 봉사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생들의 진로 탐구와 경력 개발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WKBL 유력 우승후보는 '삼성생명'

BNK, 대항마로 떠올라

여자프로농구 6개 구단이 2024~2025시즌 우승 후보로 유망 삼성생명을 꼽았다. WKBL 구단 감독과 각 팀 주요 선수들은 21일 서울 중구의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2025시즌 하나은행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 새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로 삼성생명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올해는 아산 우리은행, 청주 KB국민은행의 양강 체제로 이어지던 WKBL에 새로운 바람이 예상된다. 이번 비시즌에 선수 이적이 많아, 신규 조화를 빠르게 찾는 팀이 상승세를 이룰 거란 평가가 따른다. 6개 구단 감독도 케를 같이했다. 선수 변동이 적은 삼성생명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다. 모든 팀이 가진 걸 다 끌어내려 노력할 거긴 한데, 변화가 없는 삼성생명이 유력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 BNK가 대항마로 꼽혔다. 하상운 삼성생명 감독과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이 BNK에 포를 던졌다. 김완수 국민은행 감독은 "우승 후보를 딱 꼽으라고 하면 어렵다"면서 특정 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 감독이 삼성생명과 BNK 두 팀을 뽑으면서 6개의 표가 유지됐다.

Advertisement for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Jeonbuk EduPay Voucher Card) featuring a green background, a card image,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전북에듀페이' (Jeonbuk EduPay) featuring a yellow background, a card image, and promotional text.